

신한 **트트트** 195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8
11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ISSUE 1 - 신한대학교, 5년 연속 수시모집 경기북부 1위

ISSUE 2 - 신한대학교 새로운 학과 소개

ISSUE 3 - 2018 신한류 슈퍼루키모델콘테스트

-
- 신한류로 세계화 한다
 - 신한대학교 국제화 전략,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로
 - 신한대학교 개교 제 46주년 기념 감사예배
 - 유튜브 교육적 활용
-

명 강의 비법, 교양학부 주경희 교수

Culture 서평

신한대학교 홍보대사, 신한슈퍼스타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록'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서갑원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06
- 발행일 2018. 11. 30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현규 기자
- 디자인 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이념과 비전
- 04_ 편집장 논설
- 06_ 신한류와 신한대-신한류로 세계화 한다
- 12_2018 신한류 모델콘테스트
- 14_ 신한대학교 국제화전략,아시이를 넘어 중남미로
- 16_ 신한대학교, 5년연속 수시모집 경기북부 1위
- 18_ 신한대학교의 새로운 학과 소개
- 22_ 신한여대생, 세계무대에 빛날 날을 그리다
- 26_ 신한대학교 자작 전공 동아리팀
- 30_유튜브 교수 수업
- 32_ 신한캠퍼스, 새롭게 탈바꿈한다
- 36_ 교양학부 주경희 교수 인터뷰
- 38_ 신한대학교 슈퍼스타(홍보대사) 취재
- 40_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
- 42_ 제 46회 개교기념 감사 예배
- 46_ 변화하는 독서 경험
- 48_ 전시 - 사갈 특별전
- 50_ 영화 - 리틀 포레스트
- 51_ 공연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54_ 신한대학교 이모저모
- 60_ 대학발전기금
- 62_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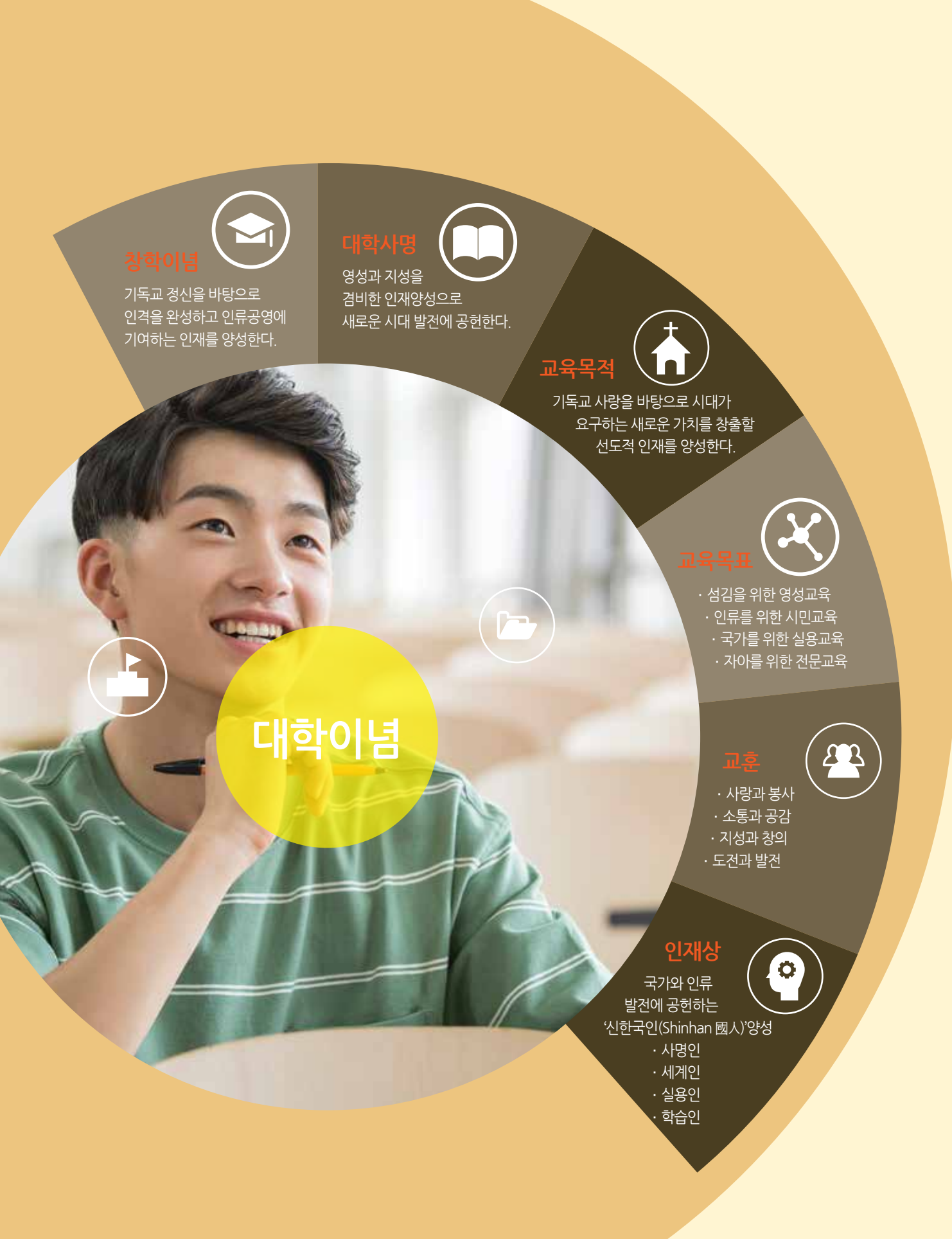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19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새 술은 새 부대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그보다도 훨씬 더 다르겠지요.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일상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는 더욱 좁아지겠죠. 그 아이들은 우리가 ‘변화’라고 느끼던 것을 ‘일상’이라 느낀 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그저 ‘변화’라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 것을 낚은 시대의 잣대로 재려 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그 새 술이라면, 부대는 그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맛이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시대의 학생들을 기존 방법으로 가르치려 들면 그들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울 뿐일 것입니다.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신한대학교 주최 ‘신한류’ 행사들은 물론, 신한대학교 제2기 ‘서갑원 총장 시대’의 개막과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학과 개설까지, 이번 ‘신한 특색’ 195호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신한대학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신한대학교는 개교 이래 꾸준히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의 모습을, 신한 특색을 통해 확실하게 만나고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박현규

신한류, 우리는 이미 준비 마 쳤다.

신한대학교에 있어 '신한류(韓流)'는 다르다

사실 한류 열풍의 첫 효시는 K-pop이 아니다. 2000년대 초 드라마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수출되어 동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겨울연가>의 주연배우였던 배용준을 왕족과 같은 호칭인 '윤사마'라는 호칭으로 부를 정도로 한류 스타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다. 이에 한 일본의 시사주간지는 한류의 일본 진출을 'Korean Invasion(한국의 침공)'라 불렀다. 이제 더 이상 한류는 일본에게 있어 단순한 유행의 측면이 아닌 문화현상 혹은 사회현상이 된 것이다.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주력 수출상품이 되었다. 드라마 <도깨비>,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대륙을 뒤흔들었다. 특히 당시 <별에서 온 그대>가 물고 온 '별그대 열풍'으로 개별 한국 자유여행을 선택한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치맥을 하나의 문화로 여기면서 치킨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했다. 그만큼 한류가 불러온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생겨난 K-pop 열풍은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불었다. 모두가 K-pop을 따라 부르며 열광했고, 세계 두터운 팬 층이 형성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트와이스 같은 걸 그룹들이 대거 진출해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 걸그룹들이 선보이는 완성도 높은 춤과 세련된 음악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과 매력적인 화장법은 일본 신세대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고,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한류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그 인기의 중심엔 방탄소년단(BTS)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무대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시상식에서 특별공연을 펼치기도 한 방탄소년단은 변방의 음악으로 무시됐던 K-pop을 당당히 세계 대중문화 중심에 세웠다.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방탄소년단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7분 동안 연설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뜻깊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제 한류는 지속과 성장을 거듭해 '신한류'로 진화했다. 하지만 이제 막 타오른 불씨이자 그 출발점에 섰을 뿐이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자, 신한대학교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신한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다수의 경진대회(K-pop 뮤직페스티벌, K-pop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신한슈퍼루키 모델콘테스트, 신한류 갈라쇼)를 개최해 다가온 신한류의 유행유이자 연료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펼쳐진 K-pop 뮤직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가, 인종, 사는 지역 등의 구분을 떠나 모두가 K-pop의 매력에 푹 빠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기능했다. 슈퍼루키 모델콘테스트의 경우 국제대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내외 모델 유망주들이 앞 다퉈 참가해 선의 경쟁을 펼쳤다. 신한류 갈라쇼는 재학생들이 지닌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공연예술학과의 경기공연이나 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전 등 그동안 디자인예술대학이 쌓아온 저력을 뽐내며 신한대학교의 '신한류'로 재창조하기도 했다.

신한류라는 흐름에 몸을 맡길지 아니면 가라앉을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신한대학은 헤엄치기를 선택했다. 아니,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다. 결승선에 도착해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 때 신한대학은 활짝 웃으며 환호와 함께 손을 번쩍 들리라. 이미 신한류의 주사위는 굴러졌고, 변혁의 신호탄은 쏘아졌다. 그 중심에 신한대학이 있고, 우리는 이미 준비를 끝마쳤다.

신대현 기자

신한류
K-POP뮤직
페스티벌
K-POP
Music Festival
ShinHanRyu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Super Rookie
Model Contest
ShinHanRyu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Street Dance Contest
ShinHanRyu

신한류
갈라쇼
Culture Collaboration
Gala show
ShinHanRyu

신한대학교는 '신한류'와 동의어 세계화의 선두주자로 국제화 앞장

4개 대회 창설해 '신한류' 소용돌이 불러일으켜 한류를 뛰어넘어 '한류'로, 한류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

'한류'라는 화두에 대한 논의는 긴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한류에 부정적인 의견 또한 긴 기간 동안 계속되어 제시되어 오기도 했다. 누군가는 부풀려진 결과라며 깔보았고, 누군가는 한 순간의 반짝임에 불과하며, 누군가는 사실 그런 것은 있던 적조차 없었다며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딜 가나 K-POP을 볼 수 있고, 외국인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소재로 대화할 수 있으며, 외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는 광경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제 한류는 부정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이 되었다.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현실에 발 맞추어 지난 2015년부터 신한류 행사라 명명된 다수의 경진대회를 창설하여 경기북부의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신한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신한류 행사는 슈퍼루키모델콘테스트, K-POP 뮤직페스티벌, K-POP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신한류 갈라쇼 등 4개. 이 중 2017년에 처음 선보인 신한류 갈라쇼를 제외하면 모두 같은 해에 시작되어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신한류 행사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한류 행사의 규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커졌고, 참가자들의 국적 역시 점차 다양해졌다. 후원자 및 심사위원들의 면면 역시 업계에서 입지 전적인 인물들이 포진했다.

국제적인 대회라고는 해도 홍보를 위해 '국제'라는 단어를 붙인, 실질적으로는 국내대회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한류 행사들은 대회를 거듭할수록 해외 참가국 수가 늘어 다른 대회와 차별화하기에 충분했다.

신한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역시 좋다. 특히 학교가 운영의 중추를 맡아 재학생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연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재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재학 중인 학교이다 보니 학교 홈페이지나 포스터 형식으로 대회 공지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K-POP 뮤직 페스티벌

K-POP 뮤직페스티벌은 현재 한류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K-POP 노래 실력을 겨루고, 그 실력을 인정받은 참가자에게 실제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방송국과 의정부시 당국의 지원을 받아 더욱 폭넓은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눈여겨볼 점이다.

K-POP 뮤직페스티벌이라고 하여 한국인 참가자들이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다. 오늘날 K-POP은 단순히 한국의 노래가 아닌, 특유의 감성과 형식을 지닌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K-POP 뮤직 페스티벌을 자주 관람한다는 한 학생은 "한국인이 아니기에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감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대학교의 교양 교과목 '한국 문화 낯설게 보기'라는 과목이 있다. 그렇게 교육받아야 할 만큼, 오히려 한국인이기에 가슴으로는 알아도

머리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K-POP의 감성을 재해석한다. 그렇기에 오히려 '외국인이라서 가능한 K-POP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K-POP 뮤직 페스티벌을 꾸준히 관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K-POP 뮤직 페스티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행사라는 점이다. 다른 신한류 행사들 역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지만, K-POP 뮤직 페스티벌은 야외무대에서 진행 된다는 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단순히 K-POP의 실력을 겨루기만 하는 행사라면 페스티벌이 아닌 콘테스트라는 이름이 붙었겠지만, 지역 사회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꾸며지기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행사가 되었다.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국내외의 모델 유망주들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인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는 특히 대회를 거듭할수록 신한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여러 해외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인재 풀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4회 대회에서는 중국 천진공대,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학 등 7개 국가 10개 대학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K-POP 스트리트댄스 콘테스트

K-POP 스트리트댄스 콘테스트는 이름 그대로 스트리트 댄스를 겨루는 대회다. 스트리트 댄스란 전통무용이나 발레, 현대무용 등의 기성 무용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대중문화 기반의 춤을 일컫는 용어로 팝핀, 비보잉, 프리스타일 등의 춤들이 여기에 속한다.

신한대학교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중 유일하게 스트리트 댄스를 전공 학과로 개설한 대학으로 댄서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매 대회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의정부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보잉 팀인 'Fusion M.C'는 물론, 한국 스트리트 댄스 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인 '팝핀 현준'까지 참가자로 나온 바 있다. 특히 참가 당시 만장일치로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석에 앉거나 로열티를 받고 축하공연으로 나올법한 실력자가 왜 굳이 참가자로서 콘테스트에 출전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던 팝핀 현준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말로 백 마디 조언을 해주는 것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상금 전액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기부하여 댄서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신한류 갈라쇼

네 개의 신한류 행사 중 가장 개최역사가 짧은 행사인 신한류 갈라쇼는 다른 신한류 행사들과는 약간 취지가 다르다. 기존 신한류 행사들이 국내외의 인재를 발굴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면, 신한류 갈라쇼는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이 지닌 끼와 재능을 외부로 발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행사이기 때문이다. 신한류 갈라쇼는 디자인예술대학의 정기공연 및 졸업작품전, 뷰티헬스전공의 졸업작품전, 그리고 다른 신한류 행사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창작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신한대학교의 신한류를 완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키워오던 인재들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자신들을 세상에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뷰티헬스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메이크업을 공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으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비록 준비한 시간에 비해 갈라쇼는 짧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신한대학교는 신한류와 동의어...변화와 발전 이끌 것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류의 바람이 더욱 널리 그리고 강하게 불 거라고 예측한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UN에서 연설하게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듯이, 지금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신한류 행사 역시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신한대학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 역시 그 과정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 그런 신한대학교인 만큼 신한류 행사의 미래 역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풍경을 그려낼 것이다.



2018 신한류 모델 콘테스트,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친다

해외 인지도 높여 국제대회 발돋움...6개국 34명 본선진출
대상에 중국의 우 전웨이, 금상에 한국의 안태윤
성공적 개최로 내년 신설될 모델콘텐츠전공학과에도 "탄력"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옷을 입고, 수많은 관중들 사이로 길게 뻗은 런웨이를 따라 당당하게 걷는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채, 선망의 눈빛을 받으며, 스스로의 몸을 도화지 삼아 한 디자이너의 미학을, 사상을, 가치를, 자신의 해석을 곁들여 세상에 선보인다. 그것이 '슈퍼 모델'이라는 직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계 모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모델들과는 다른 방식의 해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델계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에,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는 2018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본선을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컨벤션 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중국천진공대 등 11개 해외 대학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 본선에는 총 6개국의 39명이 진출했으며, 김서룡 옴트 및 F2MG 메이크업 등의 기업들이 루키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찬했다.

루키 모델들의 실력은 첫 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다. 기본적인 옷मान을 입은 채 런웨이를 걸어 나와 자신을 소개하는 '결선진출자 개별인터뷰' 순서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살리며 심사위원들에게 스스로를 강조했고, 이어서 김서룡 교수의 작품을 입고 진행된 '참가자 패션쇼'에서는 마치 프로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활보했다.

본디 사람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 법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어울리지 않는 옷도 있다는 뜻이다. 모델이라는 직업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옷을 입어도 디자이너가 처음 상상한 그대로의 모습을 연출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콘테스트의 대미를 장식한 김서룡 교수의 의상들은 루키 모델들로서는 처음 입어보는 옷들인데도 그동안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옷맵시를 뽐냈다.

무대는 콘테스트가 진행되는 내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루키 모델들은 루키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능숙하게 런웨이를 활보했고, 세계 B-Boy 랭킹 1위에 자리한 댄스팀인 Fusion MC의 축하무대는 루키 모델들이 다음 복장을 준비하는 사이의 시간을 역동적인 시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특히 국기원 시범단 20명이 선보인 태권도 시범공연은 신한대학교에 내년 개설될 태권도교육융합전공에 대한 기대

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화려했다. 심사위원 이선진 모델은 김서룡 교수의 옷을 입고 나오는 루키 모델들을 보며 내내 감탄을 감추지 않았다. 디자이너의 작품을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모델의 역할이라면, 루키 모델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역할을 해냈다.

이번 콘테스트는 중국 성도의 우 원웨이(여)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에 한국의 안태윤(남), 은상에 중국 천진의 께오 샤야(남), 동상에 한국의 심어진별(여)과 중국 천진의 자오하오텐(남), 포토제닉상에 카자흐스탄의 메디나 톨레게노바(여)와 몽골의 담딘 문크밧(남) 그리고 한국의 임형완(남)이, 인기상에 중국성도의 위에 커(남)와 벨라루스의 야나 트러쉬코(여) 그리고 한국의 허진겸(남)이 각각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의 감회 역시 남달랐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금상을 수상하여 국내 참가자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태윤 씨의 경우 그 정도가 남들보다 큰 듯 했다. "처음 나가보는 큰 대회이다 보니 긴장이 많이 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너무 쟁쟁하여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그는 말했다.

보통 연예계나 모델 쪽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잦은 갈등을 겪는 것과는 달리, 그의 경우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오히려 "부모님의 응원과 칭찬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자신감 있게 무대를 즐기면서 차근차근 열심히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경기도 착한 교복모델 콘테스트를 통해 모델로의 꿈을 걷기 시작했다는 그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이듯이, "앞으로도 워킹 포즈 같은 기본기를 더욱 탄탄하게 하여 모델로서의 역량을 더욱 늘리는 데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규 기자

신한대학교 국제화 전략,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로

서갑원 신한대 총장... 제1차 한-메르코수루(남미공동시장) 미래협력 포럼 주재
멕시코 사틸로 'UANE(Universidad Autonoma del NorEste) 대학교'와 MOU 체결
신한대 재학생 인턴 및 취업연수 과정과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 공동운영 합의
신한대학교 관계자 “중남미 지역 대학과 다방면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를 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더 넓어졌고 영토의 개념은 허물어졌다. 끊임없이 문화를 교류해 받아들이고 서로의 것을 섞어 새로운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창조해내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산업은 물론 금융과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제화는 단순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섞인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맺고 언제 어느 때나 경계를 넘나드는 열쇠를 거머쥔다는 것이다.

기업이 국내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발을 뻗어나가는 것처럼 대학도 더 이상 국내 안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세계 다른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신한대학교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국제화를 통해 더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와 협력체계를 맺으며 전 세계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일찍이 신한대학교는 중국 운남사범대와 대만 명도대학, 태국 라자망갈라대학, 러시아 카잔연방대학 등과 MOU를 체결해 동북아와 동남아, 러시아에 영향력을 넓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개 4년제 대학과 26개의 분교를 가지고 있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와 교육프로그램 교환과 학생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15년도에 체결하고, 같은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 몬로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신한대학교 '제2기 총장시대'를 개막하면서 국제교류 협력의 폭을 아시아, 러시아, 미국을 거쳐 이제는 중남미로 확대하는 등 신한대학교 국제화 전략과 서갑원 총장의 행보가 매섭다.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측 인사 160명과 함께 방북했던 서 총장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포럼이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 7박8일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서 총장은 10월 8일 부터 이틀 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차 한-메르코수루(MERCOSUR)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해 신한대학교 국제화의 보폭을 넓혔다. 4개 세션 가운데 문화협력 세션의 좌장으로 포럼을 주재한데 이어, 12일에는 멕시코 'UANE(Universidad Autonoma del NorEste)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Creating a common future'를 주제로 열린 한-메르코수루(MERCOSUR) 미래협력 포럼에서 서 총장은 학계인사 3명과 함께 총장으로는 유일하게 특별초청 됐다. 아르헨티나 외교협회(CARI), 한중남미 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서 총장과 신한대 김우중 코이카사업단 부단장 겸 특임교수를 비롯하여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신승철 한 중남미협회 회장, 이정관 전 브라질 대사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서갑원 총장이 주재한 문화협력 세션에서는 △한-메르코수루 문화, 교육 협력(아르헨티나 한국문화교육원 원장) △문화적 다양성: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한류, 한국에서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정길화 MBC PD, Mercedes Giuffre 아르헨티나 국제관계협의회 한국그룹 담당) △한국과 메르코수루 학계협력(카롤리나 메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 △관광(세리히요 나르센스 아르헨티나 투쿠만국립대 아퀴노 연구원) 분야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서갑원 총장은 포럼에 참석한 뒤 신한대학교와 남미 지역 간 문화교류, 학(學)-학(學)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했다. 이후 멕시코 칸쿤으로 이동해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와 인턴연수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과의 최대 접경주인 호아후일라 주 사틸로에 위치한 UANE 주립대를 방문해 학생 교환과 취업연수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서갑원 총장과 호세 오두아르도 베라스페기 사무세도 UANE 총장이 각각 서명했다. 중남미지역 대학과는 처음이다.

재학생 수 1만500명(2017년 기준)의 UANE 대학은 코아후일라주, 누에보 레온 주, 타마오리파스 주 등 멕시코 동북부 지역 8개 시에 8개의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다. 이 가운데 사틸로 캠퍼스는 8개 캠퍼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캠퍼스로 전·현직 총장이 주정부 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이다.

또, 멕시코 동북부 지역 도시 가운데 양호한 치안, 쾌적한 날씨, 저렴한 물가 등의 이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데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자동차 및 부품업체 밀집지역으로 인턴 및 취업 연수의 적격지로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코아후일라 주 캠퍼스는 미국과 최대 접경주에 위치해 미국 우회 진출과 미국 대학과의 교류에도 유리하다.

두 대학은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 교수 및 학생 교류, 복수학위제, 산학협력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관리법인인 '사람 HC(SARAM Human Consulting Firm)'와 고용노동부 용역사업을 공동 운영기로 했다. 또한, 신한대 재학생 인턴 및 취업연수 과정과 스페인어와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고 한국어 강사도 파견기로 했다. 서 총장은 MOU 체결에 앞서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와 사람 HC, 기아자동차 단지를 방문해 인턴연수와 K-Move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멕시코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멕시코 출신 학생들의 신한대 유학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현지 캠퍼스를 운영파트너로 하는 신한대 캠퍼스 설립도 추진기로 했다. 서 총장이 중남미지역 국가 대학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2014년 종합대학 승격이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와 동남아, 러시아에 편승된 대학 간 교류협력 관계를 미주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학발전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한대학교는 중남미 지역 대학과 교류협력 관계를 맺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신한대가 중심 역할을 하는 신한류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대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지역 대학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신한대학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신한류 K-pop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로, 국제화를 선도하는 신한대학교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신대현 기자





2019학년도 수시입시 지원자 1만2,276명
종합대 개교 이래 최고 지원자 수 달성
5년 연속 경기 북부지역 최고경쟁률 기록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종합대 학 개교 이래 최고 지원자 수를 달성하고 경기 북부지역에서 5년 연속 최고 지원자 수 모집을 기록했다. 신한대학교는 수시모집 지원을 마감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1,253명(특성화고졸재직자 제외)에 1만 2,276명이 지원해 9.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학과 중 공연에 술전공(연기, 연출, 기획)은 55.4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미디어언론학과로 21명 모집에 379명이 지원해 18.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간호학과는 63명 모집에 1,076명이 지원하여 17.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치위생학과가 29명 모집에 403명이 지원해 1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부우수자 전형에서는 글로벌관광경영학과가 4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하여 33.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사회복지학과가 4명 모집에 94명이 지원해 23.5대 1, 글로벌통상경영학과가 4명 모집에 81명이 지원해 20.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 경쟁률은 실기우수자 전형이 77명 모집에 1,925명이 지원해 25대 1, 학생부우수자 전형이 64명 모집에 984명이 지원하여 15.3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일반전형에서는 모집인원이 181명 대폭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913명 모집에 7,767명이 지원해 8.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김주현 입학처장 직무대행은 올해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수시모집을 대폭 확대하고 내신 성적 반영 개선(최우수 2개 학기 반영), 면접·실기고사 반영비율 확대, 모의면접고사 실시(4회), 찾아가는 찾아오는 입시설명회, 고교방문홍보, 종합광고 확대, 입시홈페이지 대폭 개선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입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신한대학교에 지원해 주신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신한대학교 수시모집은 면접·실기고사의 반영 비율 확대로 인해 많은 변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실기고사의 점수가 합격에 많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한대학교는 10월 13일~14일, 10월 20일~21일(학과 별 세부일정 입학홈페이지 참조)면접고사를 실시하며 10월 22~29일, 11월 3일~4일 실기고사를 거쳐 12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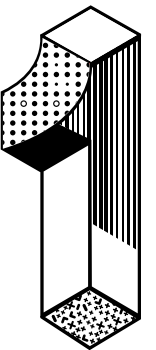
한편 신한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입학 전형료를 평균 23.3% 인하했다. 전형별로 가장 크게 인하한 전형은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전년도 대비 91.7%를 인하여 기존 6만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수시모집 사회기여자 전형은 4만원(38.5%, 6만5,000원→4만원), 학생부우수자 전형은 4만원(20%, 5만원→4만원), 일반전형은 5만5,000원(15.4%, 6만5,000원→5만5,000원), 실기우수자 전형은 9만원(10%, 10만원→9만원), 학생부종합전형은 5만5,000원(8.3%, 6만원→5만5,000원),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은 6만원(7.7%, 6만5,000원→6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4만원(20%, 5만원→4만원),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은 4만5,000원(10%, 5만원→4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할 방침이다.

신한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 전형료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규현 기자



신한대학교의 새로운 학과를 소개합니다!

미래 전장의 인재 육성 - 사이버드론군사학과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2019학년도에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사이버드론군사학과, 바이오식품산업전공,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을 신설한다. 사이버드론군사학과는 사이버, 드론, 로봇, 군사학을 모두 포함한 학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인재를 키우기 위해 신설되었다.

사이버드론군사학과에는 조금 특별한 교육과정이다. 사이버보안 드론봇(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을 운영하면서 국방 첨단 무기 체계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체험 활동이 중요한 학과인 만큼, 방학 중 군부대에 입소해 병영훈련을 하는 과정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군 연계협력 인프라와 군 협력 티칭 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된다.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었던 장교의 자질을 실제 훈련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사이버드론군사학과는 또 국내·외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학습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교양을 배우는 이론 과정도 마련해 교육방식의 균형을 갖췄다. 복수전공 기회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자치 지휘 근무 시스템 적용, 외국어·체력·전산 인증제 시행, 안보수련회, 방위산업체 견학, 군 연구소 체험, 토론회 등 다양한 주요 프로그램도 마

련되어 있다.

사이버드론군사학과와 가장 큰 장점은 병역, 취업, 학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선발되면 4년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졸업과 동시에 소정의 군사교육 후 국군장교로 임관하게 된다(의무복무 3년, 장기4년). 장기 복무에 선발될 경우 직업 보장은 물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위탁교육 및 고급 기술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학과 졸업 후 취업은 장교뿐만 아니라 전공심화, 다 전공을 통한 전문 영역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통신사령부가 그 예이다.

사이버드론군사학과와 모집방법은 성적, 면접, 체력고사로 이루어진다. 면접고사에서는 지원 동기, 국가관, 리더십 등을 평가하고 체력고사에서는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를 실시한다.

사이버드론군사학과와 교육 목표는 '변화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새벽을 깨우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통일의 주역이 되자'이다. 이 목표 아래 국방경영 혁신에 맞춘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가치를 창출하여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미래 안보 리더를 육성할 것이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에서 통일의 주역이 될 군사 안보 전문가가 나오길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경기북부 최초 바이오식품 관련 학과 - 바이오식품산업전공

바이오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식품산업의 전문적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식품산업전공은 식품과 영양의 전반적인 이론을 토대로 식품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발효 등의 응용기술을 연구함으로써 바이오 식품산업 분야의 식품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식품영양에 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최첨단 바이오식품 제조와 생물신소재 개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전공이다. 또 21세기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한 한생물질과 비타민 사업, 유전자변형을 이용한 인공식품제조 및 가공, 수퍼푸드 등의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식품의 첨단 과학 분야인 생명공학, 나노과학, 환경공학 등과 융·복합하여 미래 식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식품 공학과 식품 영양이 융합된 학과인 만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첫째, 식품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진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한 식품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의 산업 전망까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인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교육함으



로써 기본이 탄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한 견학과 인턴십을 제공한다. 경기 북부 양주 최대 유가 공회사인 마니커, 크라운 등 유명 식품 기업들과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학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자격증 준비에도 힘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식품기사, 식품위생사, 생명공학기사, 식품품질관리기사,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제조기술사, 유통관리사, 발효효소관리사, 축산기사, 품질경영기사 등이다. 실무 중심의 식품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에 알맞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식품산업전공의 취업분야는 국공립연구소, 식품관련회사, 식품유통안전관리직,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회사, 식품유통업체, 식품위생직 및 보건연구사 공무원, 품질관리사 등이다.



21세기의 지덕체 담당 -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은 21세기를 선도할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차별화된 문화교육의 융합과정을 통해 과학적인 학문탐구와 기술 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맡을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태권도와 공연·문화의 융·복합을 통해 태권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자·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교육을 통해 무도적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태권도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태권도의 전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태권도와 공연, 문화를 융합하고 어학능력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키워 해외진출을 겨냥하는 것도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자격증이 필수인 분야인 만큼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태권도 단증, 사범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심판자격증, 카이로프랙틱지도사, 재활마사지사, 메이크업전문가, 비만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AT(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지도사, 인명구조요원, 수상안전법강사 등 거의 모든 체육관련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졸업생은 해외대륙 및 국가 연맹과 관련된 위원, 각 단체 선수 및 감독, 태권도 기관/협회 직원(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등), 강교/부서관, 체육교사, 태권도 신문/방송 관계자, 태권도 공연 관련 연출/기획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대중문화시대를 선도 - 모델콘텐츠전공

모델은 패션과 대중문화를 잇는 시대를 선도하는 '감성산업'의 주역이다. 모델 직업은 패션쇼, CF, 잡지, 패션쇼 기획 및 연출 등의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공연예술학부 모델콘텐츠전공은 패션 영역뿐만 아니라 방송, 미디어 기획, 홍보 등의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패션산업 및 대중문화예술계열 분야를 융합·교육한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기를 갖춘 교수진이 연구와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이 학과의 특징이다.

모델콘텐츠학과는 모델이라는 직업 외에도 공연기획자, 패션쇼 연출가,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 패션디렉터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비했다. 모델전문학사 자격증, 모델 교육 최고 지도자 자격(모델학회)과 같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한규현 기자



신한여대생,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빛날 날을 그린다

에미 뇌터



마리 퀴리



마거릿 대처



신한대 인재개발센터 '제4회 여대생 인재개발 아카데미' 개최
'세상을 바꾸는 여성 리더'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소통
오현숙 전 양주시 부시장... "독서의 힘, 도전의 힘, 긍정의 힘" 강조
정유리 학생(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1학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

19세기 초 미국 여학생들은 대부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도시 지역의 여학생들은 중등교육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남자 형제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198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여성은 남성과 같은 비율로 대학에 진학하게 됐는데, 여전히 전문학위를 취득하는 데서는 상당히 뒤졌다. 한편 여성들이 취득한 전문학위는 소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대개는 지위가 낮고 보수도 적은 분야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여전히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 공학부 졸업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불과 6퍼센트에 미쳤다. 특히 대학은 11세기에 출발할 때부터 여성들에게 닫혀 있었다.

이후 20세기 동안 여성들은 교육 자원에 접근하는 데서 그 어떤 세기보다 눈부신 진보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한 교육 성취도의 격차는 그대로 남았다. 그래서 여성들은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절실하게 요구했다. 이런 요구 중에는 노동과 관련된 권리도 들어가 있었다.

20세기 초에 미국 여성들은 노동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6~8년 동안 일했고, 자신이 받은 임금을 가족에게 바쳤다. 그러다 1908년 3월 8일, 이날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굶지 않기 위해 하루 12~14간씩 일하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았다. 이에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희생된 이들을 기리고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정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이것을 기념해 UN에서 지정한 것이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1911년부터 국제적인 연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중간 관리직 여성의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고위 경영직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마주쳤다. 일반적으로, 초등

학교 교직과 간호직, 사서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여성들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직위와 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설령 있었다고 해도 종종 성희롱을 비롯한 여러 괴롭힘을 당하고 고용과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받는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 국민을 이끌었던 여성들도 있었다. 미안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부터,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3기라는 최장기 집권을 한 영국 최초의 여총리 마거릿 대처, 여성 청소년부 장관이 된 것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독일의 마거릿 대차'로 불린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 등이다.

곳곳하게 자신의 영역에서 명성 있는 권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여성들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방사능 연구를 하여 최초의 방사성 원소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나, '뇌터 정리'와 '뇌터 환'으로 현대 수학에 큰 족적을 남긴 '여자 아인슈타인' 에미 뇌터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성별은 단순히 이분법적인 분류였고, 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로막는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 앞에서 오히려 뚝뚝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그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찬 의지와 포부, 남성 못지않은 단단한 의지와 물러서지 않는 결의였다.

실제 마거릿 대처는 여느 영국 정치인들과 다르게 유머감각이라고는 없었고, 거창하고 화려한 말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역으로 필요한 말만 하는 점과 통계수치와 계량적 지표 등을 내세우는 점, 무엇보다 '철의 여인'이라는 그녀의 이명답게 여성이면서도 당차고, 열정적이고, 강철 같은 의지를 내보인 점에서 신뢰감을 높였다. 그런 그녀가 최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남성들만의 유물인줄로 알았던 용기, 위험에 대한 각오, 책임감, 독립성, 그리고 추진력 덕분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는 점점 더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열린 인재를 찾고 있다. 이에 딱딱하고 정형화된 기존의 남성 의식보단 유연하고 포용력이 깊은 여성 의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로장벽을 타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자 신한대학교 인재개발센터가 개최한 것이 있다. 바로 ‘여대생 인재개발 아카데미’이다.

신한여대생, ‘여대생 인재개발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무대로의 발판을 마련하다.

신한대학교 인재개발센터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18 제4회 여대생 인재개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전체 학과 학생회의 일부 여학생과 참가 희망자 총 80명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만나 ‘세상을 바꾸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다.

아카데미는 변도윤 전 여성부장관의 ‘세상을 바꾸는 여성 리더’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유혜선 G-SM 컨설팅 대표의 ‘21세기를 리드하는 창의적 여성 리더십’, 오현숙 전 양주시 부시장의 ‘여성 리더, 날개를 펴다’, 정애리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장의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나눔과 봉사’, 윤경희 인터치코칭&커리어연구소장의 ‘올로(YOLO)와 소확해 시대의 여성 리더십’, 최유연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과장의 ‘여풍 dangdang! 셀프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워크숍 시작 전 서갑원 총장은 “최근 21세기의 변화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기존의 경쟁 중심의 남성 리더십에 비해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며 “여성 리더십은 포용성과 배려, 소통 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적합한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총장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대한민국 유리천장지수를 들며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지만 여전히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총장은 “그만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당당한 여성 지도자를 꿈꾸고 차별 받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

다”고 말했다.

오현숙 전 양주시 부시장의 강연은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으로 시작되었다. 오프라 윈프리는 “당신이 내일 아침에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 깨어나고 싶다면 잠들기 전에 책을 펴고 단 세 장이라도 읽어라”라고 말했는데, 오 전 부시장도 윈프리가 강조한 ‘독서의 힘’에 이어 여성리더가 되는 힘으로 “도전의 힘, 긍정의 힘”을 함께 꼽았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과 긍정의 힘도 중요하다”고 말한 오 전 부 시장은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며 전 여성 고위 공직자로서 경험한 다양한 조언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혜선 G-SM 컨설팅 대표는 창의적 리더가 되는 5가지 실천방안으로 “재즈처럼 쿨하게 독보적인 자신 만들기, 냉쿨을 보지 말고 길을 보기, 설득하고 협상할 줄 아는 정치력을 가지기, 전문성을 가진 T자형 인재 되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물결리더십 가지기”를 제시했다. 특히 유 대표는 니체가 주장한 철학관인 ‘위버멘쉬(Übermensch)’와 ‘아모르 파티(Amor Fati)’를 들며 ‘운명애’를 강조했다. ‘위버멘쉬’와 ‘아모르 파티’는 오히려 자신의 결단에 의해 환하게 웃는 자로 변화된 사람이자, 만족스럽지 않거나 힘들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를 뜻한다.

한편 아카데미에 참여한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정유리 학생(1학년)은 “처음에 캠프에 대해 별 생각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았고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리 학생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직까지 깊게 남아 있다”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단정 짓지 못한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해 다음에 열릴 캠프에 다시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

섬유소재공학과 이효정 학생(1학년)도 캠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이효정 학생은 “여풍dangdang 셀프 리더십 강의는 자신을 더 단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되었다”며 “대학교 4년이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년 3회째에는 특화된 주제에 따른 외부 전문가와의 다양한 워크숍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4회째에도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대기업과 유명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신 창의

력기법 프로그램으로 내용과 규모를 확대했다. 인재개발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 자기 비전과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함양한 인재를 키워낼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 중심의 운영이나 육아 및 사회적 편견 등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을 따르게 한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가고 있지만,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굹기 마련인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은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편견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이다. 끝으로 비로소 남녀 편견 없는 사회가 왔을 때 신한여대생들이 당당하게 그 정상에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

신대현 기자



열정!

지난여름 군산
새만금 자동차경주장
에서 2018 KSAE 대학생자작자동차 대
회가 열렸다. 한국 자동차공학회와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개 대학의 193
개 팀 총 3,000여 명이 참가해 오프로드 경기인 바하(Baja) 부문과
온로드 경기인 포뮬러(Formula), 가속과 슬라럼 경기를 진행하는 EV 부문
에서 기량을 다했다. 신한대학교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학생들은 학과특성
화계획의 목적으로 자동차인증 및 설계 전문인력 프로그램과 국가 R&D에
서 배운 자동차공학 관련 이론·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자작자동차를 제작해
참가했다. 교내 자작차 동아리 3개 팀(Team SHOT, C.B.A, EV C.B.A)이 출
전해 Team shot이 바하(Baja)부문에서 동상을 받았다. 그 중 'Team shot'의
자동차공학과 한규현 학생을 만나 전국자작자동차대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열정으로 주행하다

전국자작자동차대회 '바하(Baja)'부문 동상 수상 'Team shot'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한규현 학생 인터뷰

동아리에 대한 소개와 동아리원에 대해 간단한 소개해주세요.

“전공 동아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팀 C. B. A라고 하나의 큰 틀의 전공동아리가 있고, 이번 자작차
동차대회에 출전한 팀은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되어있어요. 세 팀 중에
'Team shot'이 있는데 이 팀은 'Shinhan of technology' 라고 해서 기
술적인 신한대학교의 팀이 되자는 의미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차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고, 직접 제작까
지 하는 동아리입니다.”

수상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기계 분야 쪽으로는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행
사이기도 하고, 96개의 대학교가 2,4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입상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기술 부분이 아니라 내부 레이
스 분야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것은 좀 아쉽기도 해요.”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가 대회에 나가기 시작한 게 올해로 2
년째인데, 그 전에는 출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전국자작자동차대회는 2007년부터 열렸지만 이전에는 전문대
학교에서 4년제로 바뀌면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학과에서 홍보가
덜 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출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출전했습니다. 올해는 기술부분에 입상했지만 내년에는 내부 레이스
분야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내년의 상을 노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회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다른 학교 주최로 소
규모의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부터 참여를 하면서 데
이터베이스를 쌓고 싶어요. 최종목표는 내년 여름방학에 치러지는 같
은 전국자작자동차대회입니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설계 측면에서 차가 무겁다던가 아니면 완충이 되지 않아 차의 전
면부 부터 충돌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최대한 보안을 하고, 입상했던 다른 학교들의 차량들과 비
교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설계의 경우 카티아(CATIA)라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도면을 내려서 용접도
직접 했어요. 학기 중에는 설계랑 발주 넣는 걸 주로 하다가 여름방학
에는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에 시작해서 늦을 때는 새벽 4시, 5
시까지 용접을 했습니다. 특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는 힘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도 도움을 주실 때도 있나요?

“전공 교수님들께서 물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격려를 주셨어요.
보고서 같은 서류들은 지도교수님 사인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도 도
움을 주세요. 전라북도 군산에서 2박 3일간 대회가 치러졌는데 이용우
교수님과 조교님도 내려오셔서 동고동락 하면서 함께 고생했습니다.”

자작 자동차 동아리 내에서 활동할 때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기술같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자작 자동차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함께 한다면 저도 그렇고 다른 선배들도 그렇고 모르는 것들은 알려주니까. 두 번째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배는 혼내고, 후배는 주눅이 들어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도 할 말은 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돼서 이번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자동차공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학과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자동차로 특화된 대학교가 수도권, 서울에 많지 않은데 실무경험과 설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신한대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한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쌓이긴 하지만 무조건 자동차산업으로만 사회에 진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 쪽을 공부한다면 항공이나 선박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고 손해 사정과 같은 보험회사나 기업, 도로교통안전공단 같은 공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자동차공학과라고 하면 ‘정비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취업의 폭이 다양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휴학을 하고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어요. 현지에서 정비를 1년 정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도전하는 습관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해요. 한국에서는 사실 취업 TO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요즘 글로벌라이징이라고해서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권, 유럽이나 북미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꿈을, 지평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가 따로 있나요.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에요. 좀 더 세부적인 기계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교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설계 쪽에서 ‘해석’이라고 하는데 ‘translate’

가 아니라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는 분야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그 쪽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는 그쪽 분야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시장 변화와 산업구조 혁신이 급격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시장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을 마주하고 있어 산업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상태이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빠르게 알아채서 발전목표를 정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의 중요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한규현 학생 또한 체험의 중요성과 글로벌라이징을 강조했다. 이렇듯 모두가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 기계 산업과 세계화의 융합을 꾀한다면 신한대학교 또한 기계 산업에서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최수민 기자



유튜브 교육적 활용

유튜브 활용한 '플립러닝' 선보이는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
유튜브, 이젠 하나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잡다.

You Tube



유튜브(YouTube)는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사용자가 영상 클립을 보거나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유튜브는 영상컨텐츠의 신기원을 열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수많은 영상들이 매일같이 업로드 되기에,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습 및 교육관련 콘텐츠가 매일 10억부 이상의 조회수와 100만 건 이상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 학습과 교육은 유튜브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천만 개 이상의 비디오가 교육과 관련된 태그로 분류되어 있고, 대부분 전 세계 교사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신한대학교에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가 있다. 바로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이다. 신교수는 학생들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 형태의 교수법)을 위해 제작한 강의영상 및 수업시간에 직접 녹화한 수업영상을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 시킨 후 영상의 URL을 교육학습 목적으로 개설된 특정 인터넷 카페에 링크시켜 학생들과의 학습의 장을 확대 시키고 있다. 또한 선행학습 영상을 본 뒤 학생들도 교수처럼 프레지(Prezi)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30분 스피치영상이나 강의 중 배운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영상의 URL을 인터넷 카페에 링크시킨다.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예습과 복습을 모두 수행한다. 신교수가 유튜브에 올린 선행학습의 영상에 신교수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코멘트를 달거나 SNS 학습용 소통 플랫폼인 클래스팅에 업로드 하여 학생들과 소통의 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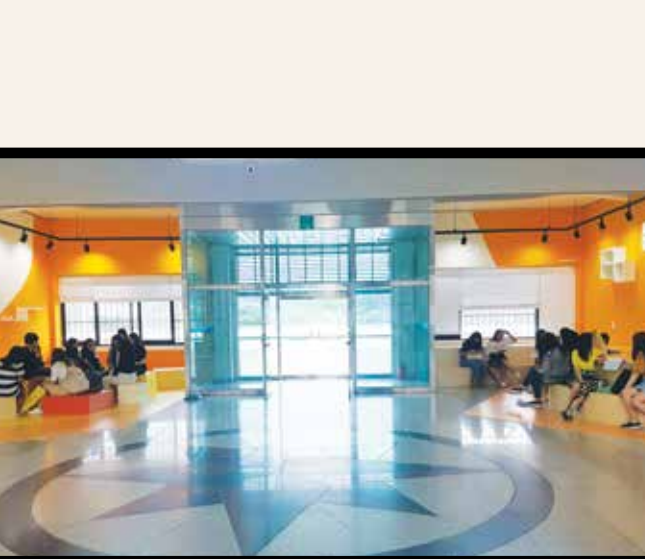
학교 수업에 유튜브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을 접목시키면 교육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자의 시선으로 엄선한 다양한 영상을 활용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교실 밖의 주제까지도 생생하게 다룰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의 도구로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더 나은 교육을 만들고 교육학습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교육자, 학생의 무한성장 교육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을 수강한 치기공학과 2학년 김모 학생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30분 스피치 영상을 통해 먼저 배우고, 또 수업이 끝난 후 찍는 동영상 스피치 영상을 통해 한번 더 복습하니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세상에서는 영상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 녹화와 편집 및 공유를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수업이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신한캠퍼스,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다

행함관 야외테라스, 은혜관 쉼터와 소형 스터디룸 설치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올라오는 언덕 쪽에 계단 설치
 시설관리팀 황보혁 팀장 “학생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항상 노력”
 이은미 학생(미디어언론학과 3학년) “점점 학교가 변화… 대체적으로 만족”



벨기에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였던 빅터 호르타(Victor Horta)는 “건축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서 복잡성과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에 따르면 건축물도 생명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건물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건물을 몸으로 여기고 그 안을 오가는 사람을 세포처럼 여길 수도 있겠다.

우리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도 건축에 대한 심오한 말을 남겼다. 윈스턴 처칠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의사당을 다시 지을 것을 약속하며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고 연설을 통해 전했다.

두 역사 속 인물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건축이 곧 나이자 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 된다. 예컨대, 오래 같이 산 부부는 닮는다고 한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해 한 공간에 같이 살면서 그 공간의 규칙에 따르다 보면 습관과 생각이 바뀌어 결국 의도하지 않아도 닮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산골 암지의 수도사들이 과묵하고 겸허한 것은 조용하고 청결한 공간이 그들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아닐까. 실제 건축은 설계도 제작부터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지만 확실히 개인의 생활양식과 생각을 변화시킨다. 나아가 좋은 건물 주변을 개혁시켜 환경이 깨끗해지거나 낡은 건물은 보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외부로부터 이미지가 좋아져 평판이 오르기도

한다. 이처럼 건축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물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얼굴이 위해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건축물에도 걸레질을 하고, 페인트를

바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한편으로 그 과정이 시끄럽거나 통행



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은 새롭게 변화하고 진화하려는데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 지금 그 변혁을 신한대학교가 이루어하고 있다.

학생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한대학교

올해로 개교 46년을 맞는 신한대학은 신입총장으로 서갑원 총장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려고 있다. 하지만 장대한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 중 건축물과 시설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온몸 이곳저곳이 쭈시고 점점 제 기능을 못 하는 곳이 많아지듯, 건물 또한 세월이 지나면 외견상 멀쩡해 보이더라도 어느 한 군데는 반드시

빠격거리거나 낡고 볼품 없어진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이 잘 되듯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공부환경 또한 서 총장이 취임식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공꾸는 대학, 변화하는 대학, 함께 하는 대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에 방학 중에 말씀관 인테리어와 강의실 보수가 이루어졌다. 행함관은 좀 더 밝은 분위기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본 형광등에서 LED형광등으로 교체했다. 앞으로 바닥 보수도 예정되어 있고, 기자재와 관련 해 기도관과 은혜관 책상은 다음 학기 중에 교체될 예정이다.

쾌적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뒷받침 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시설관리팀은 총학생회와 함께 시설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나 위험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캠퍼스를 직접 다니며 점검했다. 그 결과 모든 소방기구나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최근에는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에벤에셀관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도 언덕 쪽에 계단을 설치했다.

별도의 요청이나 총학생회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결과로 반영한

다는 시설관리팀 황보혁 팀장은 “무엇보다 표현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의견을 많이 전달해주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팀의 목적, 나아가 서갑원 총장과 신한대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학생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서 총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복지서비스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지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요청 사항들을 참고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2캠퍼스의 공간 재배치 시 학생들을 위한 복지 공간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저번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실제 황보혁 팀장도 “2캠퍼스 행복기숙사를 완공하고 환경개선에 힘쓸 예정”이라며 “부족한 학생식당을 보완하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학생 복지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1 캠퍼스도 학생 복지를 위해 여러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행함관 앞 야외테라스를 비롯해, 은혜관 학생쉼터와 토론이나 조별과제를 하는데 용이한 소형 스터디룸이 있다. 특히 야외테라스에서는 햇볕을 쬐며 파라솔 밑에 앉아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디어언론학과 이은미 학생(3학년)은 “점점 학교가 변화하는 것 같다”며 “행함관 야외테라스도 그렇고, 은혜관 쉼터도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좋다”고 밝혔다.

비흡연자의 권리와 캠퍼스 미화를 위해 흡연부스도 이동됐다. 기존 행함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흡연부스는 건물까지 냄새가 닿지 않는 구석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테라스를 같이 조성했다.

한편 학교에는 스승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존경해야 마땅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항상 어딘가에서 알게 모르게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는 어머니 같은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학교의 보안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까지 신경 쓰는 아버지 같은 경비원들이 있다. 하지만 가끔 그들의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배려하지 않는다. 그들도 학교의 한 일원이자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말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 정영호 담당은 “학생들이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고 바닥에 담배꽂초를 버리고 침을 뱉어 미화원 분들이 치우는데 애를 쓰신다”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담당은 “모두가 하나의 기본적인 약속처럼 이를 지키고, 주인의식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 피해보는 일 없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흔히 학생을 보고 학교의 모습을 떠올리기 보단 학교를 보고 학생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오히려 더 학생을 보고 학교의 모습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여유와 심이 있지만 결코 한 곳에 서만 머무르지 않는, 격동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신한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신대현 기자



명강의 비법은 ‘움직이는 학습법’

학생들과 교감하며 학생입장에서 피드백으로 강의 수정
‘꿀 강의’ 교양학부 주경희 교수 수강신청 경쟁률 평균 250대1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강의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수강신청 성공 여부에 따라 한 학기의 생활이 달린 만큼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모든 것을 건다.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수강신청 성공하기’라는 제목을 가진 블로그 글이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를 얻는다. 인기 인터넷 강의처럼 각 대학에도 인기 강의가 있다. 스마트폰 앱 ‘에브리타임’을 통해 신한대학교의 인기 강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다양한 강의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다. 많은 강의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강의는 역시 교양학부 주경희 교수의 강의들이다.

주경희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수강신청 경쟁률이 높다. 그가 올해 교양과목으로 진행한 ‘영미문학과 영화의 만남’, ‘영미산문기행’, ‘여성과 문학이야기’는 평균 경쟁률이 250 대 1이다. 경쟁률이 높은 탓에 수강정정 기간에도 학생들로부터 정원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이다.

주 교수 강의는 ‘꿀’강의로 소문이 나 있다. ‘꿀’강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당장 취업을 위해 학점이 필요한 졸업예정자에게는 강의 난이도에 비해 후한 학점을 주는 강의가 ‘꿀’강의가 될 수 있고, 지나친 전공 시험으로 지친 학생에게는 중간, 기말고사가 없다는 이유로 ‘꿀’강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 교수의 ‘꿀’강의가 갖는 의미는 이와는 다르다. 주 교수의 ‘꿀’강의는 그만의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는 강의라는 의미에서 ‘꿀’강의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관심과 애정, 강의를 듣는 타 학우의 의욕, 해당 분야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주 교수의 강의를 ‘꿀’강의로 느끼게 만든다.



주경희 교수의 강의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다른 강의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움직이는 교수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움직이는 교수법’은 강의 내용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다. 어떤 방법이 어렵거나 학생들이 흥미를 못 느낀다면,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이를 수정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이다.

주경희 교수는 “스승인 내가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수 대 학생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서로 인간다움을 느끼고, 나아가는 것이 교육을 하는 사람의 진정한 교육방식이다.”라고 말한다. 주 교수가 교육을 받던 시대에는 교수는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와의 교류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육법’을 통해 상호 교감하여 교수와 학생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 교수는 강조한다.

주 교수의 가장 큰 목표는 교단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려고 하는 편이다. 그들은 한 사람 한사람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스승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주 교수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치현 기자

‘신한의 얼굴’ 신한대 홍보대사, 신한슈퍼스타

학생이 중심에 있는 홍보대사, 건강한 학교 이미지를 위한 그들의 노력
입시박람회, 각종 행사 의전, 캠퍼스 투어 진행해 신한 새 모습 홍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지닌 제품도 그에 걸맞은 대외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다. 대학 간의 학생 모집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평가받는 대학의 ‘홍보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신한의 얼굴’로 활동하며 외부에 신한대학교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신한슈퍼스타는 신한대의 핵심 홍보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신한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신한슈퍼스타는 신한대학교 비서실 소속 공식학생 홍보대사이다. 대학 캠퍼스투어(견학)와 대학홍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학간의 ‘홍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홍보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한슈퍼스타는 열정적이고 건강한 학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입시홍보 과정에서 예비 신한인인 중·고등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더 우수한 인재 유치와 학교 이미지 상승과 직결되고 있다.

2018년 출범한 17명의 제5기 학생홍보대사는 이미 수차례 ‘학교의 얼굴’로서 예비 신한인들을 위해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대입 수시 박람회에서 신한대학교를 알렸다. 지난 5월에는 의정부 송양고, 6월에는 동두천 생연중과 의정부 발곡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지 코엑스에서 열린 대입 수시박람회에서 이들은 신한대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신한대 부스를 찾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입시 활동 외에 각종 교내 행사에서 내·외빈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선사하는 것도 슈퍼스타의 몫이다.

이들의 활동은 오프라인의 홍보활동에만 집중되어있지 않다. 파급력이 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대외 홍보활동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전국대학생홍보대사연합(ASA-K)에도 가입해 타 대학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교내에서는 총학생회나 학과별 학생회와 별도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갑분도’(갑자기 여러분에게 도넛을), ‘이겼달’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 바 있으며, 2학기 중간고사 시즌을 맞이하여 학업과 관련된 ‘누가누가 정리 잘하나’ 등의 행사도 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짝이는 별들’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하고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체적인 행사 기획과 운영, 각종 활동과 우수 인재 유치 등 활동을 통해 우수 신한인 육성에 기여해왔다. 과거보다 발전을 이룬 오늘날의 ‘신한’에 맞춰 홍보대사도 이제는 함께 나아가는 ‘동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김민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마이버디

언어·문화 교류를 통한 세계인으로의 걸음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습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 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지표가 말해주듯 신한대학교에서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각국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유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어려움 극복을 돕고자 신한대학교 학생들은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었다. 바로 신한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중앙동아리 '마이버디'이다.

마이버디는 유학생들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고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아리이다.

마이버디의 회장인 황준석 학생(에너지환경공학과.2)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외국 언어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버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My Buddy

마이버디는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 환영회, MT를 진행하여 유학생들과 한국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을 연다. 또한, 유학생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며, 10월 말에는 이태원에서 다함께 분장을 하고 사탕을 나눠주는 할로윈 파티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해, 신한대학교와 지역사회에 다가온 봄을 알린 '빛·벗 축제'에서 마이버디 회원들은 만국 전통의상을 입고 한국 전통 놀이인 투호와 윷놀이를 알리는 체험부스를 진행하여 많은 환호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일반 회원들은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황준석 학생은 "동아리 회원들과의 영어회화, 토익, 중국어, 일본어 등 자발적인 스터디를 통해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버디에 소속된 학생들 대다수가 언어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1~2회 스터디 모임을 갖는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자발적 스터디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어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스터디 이후 진행되는 팀원들 간의 저녁식사는 신입회원들에 대한 동아리 적응에 도움을 주며, 스터디의 중도포기율을 낮추는 원동력이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스터디 우수팀을 선정한다는 것 역시 학생들의 자발적 스터디가 이루어지는 것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신한대학교의 인재상 중 하나인 '세계인'은 새로운 시대 발전과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뜻한다. 마이버디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없는 활동을 이어나감으로써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화교류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

이송은 기자



창학 반세기...도약의 50년 다짐

신한대 개교 46주년 기념 감사예배...장기근속 25명 표창
서갑원 총장 “혁신의 길은 대학의 강자가 되는 길”
설립자 강신경 목사에게 생신 꽃다발 증정...각계 축하 메시지 답지
김병옥 전 총장 ‘펜으로 읽고 믿음으로 필사한 BIBLE’ 성경필사본헌정식



개교 반세기를 눈앞에 둔 신한대학교가 향후 50년의 대 도약을 다짐하는 제46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를 10월 5일 의정부 캠퍼스에 베네셀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갑원 총장 취임으로 '제2기 총장시대'를 개막한 신한대가 꿈꾸는 대학, 변화하는 대학, 함께하는 대학을 새 이정표로 삼아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서 총장이 기념사에서 희망과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새로운 대학의 강자가 되기 위해 혁신의 길을 개척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위기의 대학'을 '제2 창학'의 열정과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개교기념 감사예배에는 신홍학원 설립자 강신경 목사, 김병옥 전 총장, 안현수 신홍학원 이사장 등 모교 교수회와 법인관계자, 총학생회 임원진을 비롯해 내외귀빈과 교수, 교직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다.

KBSN 김기웅, 조은지 아나운서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1부 개교기념 감사예배는 교목실장 김용섭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장기근속자 표창, 총장 기념사, 외부인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 신한대가 창설해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한 2018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경연 동영상 상영, 로고스합창단의 찬양, 박정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영상을 보내온 사람은 김성원·정성호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6명이다.

근속 표창을 받은 교직원은 30년 근속 노은영 공공행정학과 교수 등 3명, 20년 근속 안상호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전국현 학생지원처 부처장 등 교직원 7명, 10년 근속 양승희 간호학과 교수를 비롯한 15명 등 모두 25명이다.

김병옥 전 총장의 저서 '펜으로 읽고 믿음으로 필사한 BIBLE' 구약편 양장본 출판기념회로 열린 2부 행사는 저자 및 저서소개, 김 전 총장 인사말, 도서 기증식, 신홍학원 설립자 강신경 목사에게 걸려온 길 동영상 상영, 강 목사 생일케이크 점화 및 꽃다발 증정, 안현수 목사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신약 각권을 필사본 페이퍼 북으로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구약 필사본을 한 권으로 묶어 양장본으로 출판했다.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로 구성된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929장 2만 3,214절, 60만 9,247 단어(킹 제임스성

경 기준)이다. 김 전 총장은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260장 7,957절, 17만 9,011 단어를 지금까지 2차례 노트에 옮겨 적었고, 구약성경은 한 번 노트에 옮겼는데 이번에 구약을 양장본으로 발간한데 이어 신약도 양장본으로 1권으로 묶어 출판할 예정이다.

서갑원 총장은 유보선 부총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저는 지난 7월 총장에 취임하면서 꿈꾸는 대학, 변화하는 대학, 함께하는 대학을 지향하자고 말씀드린바 있다”고 밝히고 “창학 반세기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5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구성원 여러분이 처한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스로 혁신의 길을 열어간다면, 새로운 대학의 강자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또 “입학자원의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모든 대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국제교류 확대, 교육과 연구제도의 혁신,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비롯해 산학협력체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우리 대학이 내년에 대학평가인증, 2020년에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대학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아울러 혁신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랑하는 신한대학교 학생 여러분,
자랑스러운 동문 및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내
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서갑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한대학교가 마흔 여섯 번째 맞는 생일
이자 종합대학으로 출범한지 5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
다. 그리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
하신 구성원 여러분이 생일상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
러분과도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병욱 전
총장님의 '펜으로 읽고 믿음으로 필사한 BIBLE' 구약 편
출판기념회를 겸해 그 뜻이 더욱 깊습니다.

김 전 총장께서는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경말
씀을 한 단어 한 단어 펜으로 옮겨 적으며 하나님의 뜻
을 새겨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총장에 취임하면서 꿈꾸는 대학, 변
화하는 대학, 함께하는 대학을 지향하자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꿈꾸는 대학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꿈,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꿈, 교육 100년 대계의 초석
이 되겠다는 꿈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도전의
식을 갖고 혁신을 실천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변화
하지 않는 조직은 세상을 선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당면한 구조적인 환경은 그 해결이 거의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방향과 혼란 그리고 새로운 좌표설
정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야후의 CEO 마리스사 메이어는 "변화를 향해 열려 있
으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약속하는 미덕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대학 현실에서는 실패는 매우 위험한 것
이며 성공이 곧 미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
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지에 따라 결정된
다고 합니다. 소셜 뉴스 커뮤니티 래딧 공동창업자인 알
렉시스 오하니언이 말한 것처럼 대학도 '남아있는 목숨
이 없는 것처럼 움직여야' 발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흥하고 쇠하는 원인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입
니다. 대학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제도
를 만드는 것이지 제도가 사람을 속박한다는 생각에 함
몰되면 도약을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가 현실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
입니다.

우리 신한대학교는 창학 반세기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5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
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우리는 'New-venity'라는 발전
전략으로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과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과
조직은 생존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과 조직은 퇴보를 면
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성취한 조직은 구성원들이 희망
을 품고 열정을 바친 조직입니다.

또한 성공한 조직은 이를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
고 행동한 조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과 긍정은 동
의어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한인 여러분.

대학이 처한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자기최면을 걸어주기 바랍
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음의 프
로그램을 다시 짜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과 긍정과 자기
확신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지름길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한대학교가 변화에 앞장서고 스스로 혁신의 길
을 열어간다면, 새로운 대학의 강자로 앞서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확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달 마감한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우리 대학
은 5년 연속 경기북부지역 대학 가운데 경쟁률 1위 자
리를 지키고 역대 최대의 지원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전통의 명문사학이라는 입지를 바탕
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지난 4년 동안 또 다른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위 기록에 자족하는 것으로 대학의 위상이 경
립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더욱이 대학은 존재하는 것만
으로 그 입지가 확보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
없이 는 퇴출당하는 시대가 오늘 날 대학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
니다. 특히 국내 대학은 입학자원의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학자
원은 그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현재의 대학입학정원 보
다 10만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
리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지
못한다면 도태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대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
다. 연구, 교육, 행정, 지배구조와 재정 등에서 변화를 위

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 교육과 연구
제도의 혁신,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비롯해 산
학협력체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
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내년에 대학평가인증, 2020년에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과정은 우리대학이 명실상부한 4년제 대학으로 우
뚝 설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구성원 여러분
과 함께 대학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개선
할 것은 개선하고, 아울러 혁신에 필요한 성장 동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한인 여러분.

즐거운 생일잔치에서 대학의 위기와 구성원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습
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일군 '신한정신'
을 바탕으로 '불굴의 아카데미'를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우위의 전통을 가진 보건, 공학, 식품계열을
넘어서는 융합교육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노력
을 기울여 새로운 대학상을 수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
습니다. 또한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는 경기북부의 거점대학
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거
점대학으로 도약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한 걸
음씩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선택한 힘든 길
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여 신한대학교를 반석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작은 요람에서 수도권역의 명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총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도록 기도드립니다.

학교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오늘 장기근속표창을 받
으신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내외귀빈, 신한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신한대학교 총장 서 갑 원

■ 내빈

△안현수 신흥학원 이사장 △김관목 김종호 이인규 이성렬 박정호(이상 신흥학원 이사) △강성락(신안산
대학교 총장) △박용진(신안산대학교 순효학원 이사장) △이인규(신흥중고 교장) △조진석(보영여중·고등학교 상임이사) △김원용(안흥교회
담임목사) △장수진(신흥신망애복지원 원장) △조성극(신흥전문요양원 원장) △윤양식(의정부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조금량(연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진영(의정부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윤성모(신한대 평생교육원 파주분원 부원장) △조강택(경기북부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용걸(신한대 평생교육원 신평총동문회 회장)

■ 근속 공로자 명단

□ 30년(3명) △노운영(공공행정학과 교수) △주경희(교양교육원 교수) △유은경(글로벌관광경영학과 교수)

□ 20년(7명) △안상호(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부교수) △강성현(산업디자인전공 부교수) △박문찬(안경광학전공 교수) △차정원(안경공학전공 교수) △권영일(임상병리학과 부교수) △전국현(학생지원처 부처장) △진권일(시설지원팀)

□ 10년(15명) △양승희(간호학과 부교수) △배영금(국제어학과 조교수) △박용민 이정원(이상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부교수) △황영경(미디어언론학과 조교수) △임승희(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진영(식품영양전공 부교수) △안선정(외식조리전공 부교수) △남명자 고태순 정진아 조혜선(이상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청재 김옥태(이상 치기공학과 부교수) △김수경(치위생학과 부교수)





12:19



종이책에서 e북으로, 변화하는 독서습관

사람들 손에 종이신문 대신 모바일 뉴스, 달라진 지하철 풍경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읽고 싶었던 책을 읽기 위해 더 이상 두껍고 무거운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일이 적어졌다. 대신, 사람들의 손에는 성인 남성의 손바닥 두 배만큼의 큼직한 전자기기가 하나씩 들려 있다. 바로 태블릿 PC, e북 리더기이다.

전자책이라고도 불리는 e북은 'Electronic book'의 줄임말로, 일반적인 종이 형태의 책이 아닌 디지털로 변환되어 유통되어 PC나 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책을 의미한다. e북은 1971년 미국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 초반,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가왔다. 국내에서는 2007년 아마존이 전자책인 '킨들(Kindle)'을 선보이며 출판업계에 흥행을 일으켰다. 전자책이 한국의 출판업계의 큰 돌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딱 맞은 것이다.

이후 많은 출판업계는 서둘러 e북과 더욱 최신화 된 e북 리더기를 선보였지만, 2000년대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탐탁지 않았다. 번쩍거리는 화면 때문에 눈이 아파 보기 힘들다는 의견과 전자책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잠시, 현재 2018년 사람들의 독서습관은 예전과는 크게 변화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7년 출판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출판산업 전체 매출액의 50.7%를 차지하는 출판사업체(종이책출판) 매출은 1.6% 감소했고, 온라인 서점 매출 15.7% 증가, 전자책 유통사(통신사 및 포털사이트 제외) 매출 37.0% 증가가 전체 출판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2016년 전자책출판사의 매출규모는 약 835억 원으로, 전년(709억 원) 대비 17.8% 늘어났으며, 전자책 제작종수는 '15년 41.5종 → '16년 72.4종으로 1.7배 증가, 종이책의 전자책 전환 비율 또한 '15년 51.2% → '16년 59.0%로 7.8% 늘어났다.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는 독서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한 사람들의 독서습관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이 뉴스 대신 스마트폰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고, 책갈피를 이용해 종이책의 마음에 드는 구절을 표시하기보다 e북리더기의 '형광펜' 기능을 통해 마음에 드는 구절을 표시한다.

전자책은 종이책 특유의 감성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책 대신 종이책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며, 음성읽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추가되어 독서인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전자책의 장점도 전자책을 이용하기에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들이다. 또한, 전자책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이처럼 많은 장점으로 이제는 종이책만큼 우리의 독서생활에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전자책. '독서는 종이책이지.'라는 생각들로 전자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전자책에 도전하여 변화된 독서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

조희지, 정윤지 수습기자



삶을 사랑한 화가, 마르크 샤갈

샤갈: 러브 앤 라이프
이스라엘 박물관 컬렉션



마르크 샤갈은 파블로 피카소에게 ‘마티스와 더불어 가장 뛰어난 20세기 색채 화가’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색채와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독창적이며 독보적인 작가였다. 그의 그림은 아무리 그림에 대해 박식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시 샤갈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된 ‘샤갈: 러브 앤 라이프전’은 그의 삶을 다채롭게 물들게 한 고향과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SECTION 01. 초상화 그리고 자화상

러시아에서 샤갈은 유대인으로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러시아 시대의 강제 군주제를 온몸으로 겪었다. 그런 그에게 고향이란 사랑과 안타까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했다. 고향을 그려낸 그의 그림을 보면 강렬한 색채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동물이나 자연을 그려냄으로써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그는 고향에서의 미술 공부에 만족할 수 없어 프랑스로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의 그의 어린시절은 그의 작품 속에서 영향력을 질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샤갈의 그림에서 대부분 배경으로 그의 고향인 러시아의 비테프스크의 평화로운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고향’은 사전적으로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곳’이라는 심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아주 잠깐 머물렀던 곳이 고향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특히 거주지가 자주 바뀌게 되는 현대인들은 진짜 자신만의 ‘고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를 살기에도 빠듯하기에 고향의 추억과 그리움은 누군가의 사치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공간적인 ‘고향’이 없다면 자신이 가장 그리운 시간이나 사람이 자신의 고향이 되는 것이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추억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추억이기에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남긴다. 그렇게 고향은 잊을 수 없이 따뜻하게 마음에 남아있다. 샤갈의 그림은 보편적인 감정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그려낸 그의 초상화이자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이다.

SECTION 02. 연인들

샤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인’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떠오른다.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해냈

다. 그는 머리만 떠다녀거나 날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그렸다. 특히 <산책>이라는 그림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그와 벨라의 그림들은 실제 모습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묘사되어있다. 마치 아픔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밝고 빛나며 청명하다. 사랑 앞에서 주저 없었던 샤갈의 마음은 그의 그림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진다. 무중력의 상태로 공중에 머무르는 벨라의 손은 돌의 고향 비테프스크 위에 두 다리로 굳건히 서 있는 샤갈의 손과 꼭 맞잡고 있다. 이는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마음이 묻어난다. 하지만 그림처럼 항상 행복하고 밝은 미래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고 함께 걸어갈 용기가 있었다. 샤갈은 봉 떠있는 기분처럼 주체 못할 행복을 머금고, 벨라가 먼저 세상을 뜰 때까지 아껴주고 사랑했다. 샤갈 그림의 원천은 벨라였으며, 그녀는 샤갈에게 동반자이자 최고의 뮤즈였기에. 그와 벨라의 그림들은 두 사람이 헤어질 때 까지도 그 작품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예술에도, 삶에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라는 샤갈의 말처럼 그의 삶은 풍부한 사랑의 색으로 다채롭게 물들어 있었다.

최수민 기자



나의 공간

영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내로 나가려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 토호쿠 지방의 작은 마을 코모리.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치코는 자급자족 농촌 생활을 시작한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잡초를 뽑아내며 힘들게 수확한 작물과 계절마다 바뀌는 싱싱한 제철 채소들로 매일 정성스러운 한 끼를 준비한다. 영화는 인물의 사연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이치코가 일용할 양식을 손수 재배하고 요리해 먹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일상들을 통해 두 손으로 일구는 삶의 가치를 일깨운다. 드라마적인 서사를 배제한 영화는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갈하고도 따뜻하게 담아낸 화면들은 지루함보다는 단정하고 충실한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킨다.

이치코의 음식에는 화려하거나 먹음직스러운 모습만 담기진 않는다. 오히려 일상의 재료로 직접 천천히 요리하는 모습을 통해 소박한 음식에 담긴 정성을 확인하게 한다. 이치코는 웃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요리를 한다.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싶어 식혜를 담그고, 수유나무 열매를 따서 빵에 발라먹을 잼을 만들고, 개울 주변에

서 따온 싱그러운 명을 풀로 밥에 비벼 먹을 절임 반찬을 만든다. 한여름 집안 습기를 없애기 위해 쪄둔 스토브에 빵을 굽기도 한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잡념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치코의 음식들은 식욕 자극보다는 요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쪽에 가깝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소박한 즐거움이 영화 곳곳에 스며 있다. 한 끼를 '때우는' 일이 많아진 요즘, 이치코의 남다른 삼시세끼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소박한 한 끼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전한다.

영화는 온통 초록으로 물든 여름과 노랑과 빨강계 물들어가는 가을의 시골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제작진들이 코모리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몸소 체험하며 얻어낸 계절의 풍경과 소리가 화면에 덧입혀지며 무자극의 감흥을 만들어낸다. 푸른색 들판과 따사로운 햇볕, 여름밤 찾아 드는 나방과 장수풍뎅이, 가을의 황금 들판 등 다채롭게 변화하는 계절의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머리를 맑게 치유해준다.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빨강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의 팔레트는 그 자체로 경이로움을 안긴다.

“왜 코모리로 돌아왔냐”는 이치코의 물음에 후배 ‘유우타’가 답한 말이다.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의 생활을 꿈꾸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를 버리고 귀촌, 또는 귀농을 하라고 한다면 역시나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가 비추는 농촌 생활도 단지 힐링이나, 웰빙 라이프 같은 유행으로서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치코는 건강한 밭을 일구기 위해 끝없이 잡초와 사투를 벌이고, 매끼 식사에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며 끼니가 끝나자마자 다음 끼니를 준비한다. 치열한 삶이다. 그러니 도시를 떠난 자연 속에서의 삶이 마냥 느리고 여유롭기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슬로라이프는 단순히 ‘느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더욱 진실 되게 다가온다.

김치현 기자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연극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연극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이야기는 도둑 세 명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나미야 잡화점에 우연히 들어와, 30년 전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게 되면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과거에서 온 편지인줄 모르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자신들이 있는 미래의 일들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람들에게 진실한 조언을 해준다. 30년 후 조언을 구했던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여주는데, 그들의 고민과 선택, 선택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이다.

도둑들이 무심코 보낸 백지 편지에 돌아온 나미야 할아버지의 답장을 읽는 장면은 제일 마음속에 와 닿았던 장면이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백지 편지를 보낸 이유가 지도(地圖)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도가 백지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보내라고 조언했다. 아동 보호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젊은 날들을 도둑질을 하면서 방황하며 보낸 이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상담편지가 된 것이다. 어떤 길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의 지도 앞에서 막연한 문제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안다.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답장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상담자 중에는 답장을 받은 뒤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에 좀처럼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상담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소설로도 읽는 감동이 크지만, 무엇보다 배우들의 생생한 움직임과 배경음악이 있는 공연을 통해 얻는 느낌 역시 색다르다. 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연기하기 위해 배우들은 1인 다역도 척척 해낸다. 10명의 배우가 함께하는 이 작품에서 배우들은 나미야 유지 역과 좀도둑 세 명 외에 1인 다역을 연기한다. 최진석, 원종환, 홍우진, 김지휘, 김바다, 강영석, 강기동, 최

정현, 강승호, 한세라, 허순미, 유제윤, 김정환, 문진아, 전성민, 배명숙, 홍지희, 류경환, 신창주, 김진, 김승용 배우가 출연한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오는 10월 21일까지 관객을 만난다.

한규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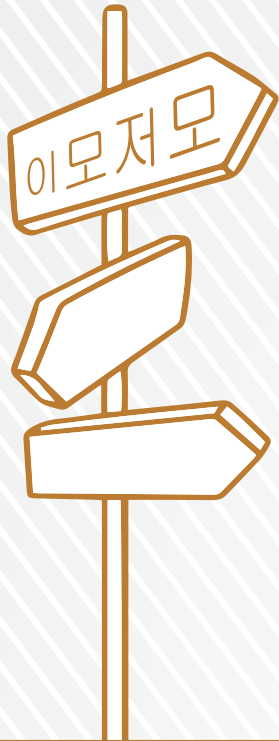




21C SHINHAN은

SUPER SITY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바이오생태보건대학 발전기금 1억 원 달성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이 2018년 발전기금 목표액인 6,000만 원을 훌쩍 넘겨 1억 원의 모금을 달성했다. 바이오생태보건대학 학장 김영성 학장은 “MBG그룹의 임동표 회장(충남일보 회장)이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생각하며 신한대학교의 신임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교수, 대학동문,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교수, 대학동문들을 중심으로 제자사랑 장학금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발전기금을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지 수습기자



‘더 쎬세이션’ ... 돌풍의 주역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가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종합대학 개교 이래 최고 지원자수를 달성하고 경기북부지역에서 5년 연속 최고 지원자수 모집을 기록했다. 실기우수자 전형이 25대 1, 학생부우수자 전형이 15.3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김주현 입학처장 직무대행은 올해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우리 신한대학교에 지원해 주신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신한대학교 수시모집은 면접·실기고사의 반영 비율 확대에 의해 많은 변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실기고사의 점수가 합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희지 수습기자

신한대 뷰티헬스전공 나미선 학생 K-Top 뷰티 엑스포 메이크업 대상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 학생이 외국의 뷰티 아티스트들이 출전한 뷰티 엑스포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바이오생태보건대학 뷰티헬스전공 나미선 학생(4학년, 지도교수 박소정)은 최근 한국뷰티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제1회 글로벌 K-Top 뷰티 엑스포 컨테스트 메이크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 신한대학교 뷰티헬스 분야 교육의 저력을 입증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 뷰티 아티스트들이 참가한 가운데 과천 서울렛츠런파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의 뷰티 아티스트와 교류를 통해 다른 국가의 뷰티 트렌드를 경험하고 뷰티산업을 교류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한규현 기자



신한대, 스리랑카 기술교사 교육수료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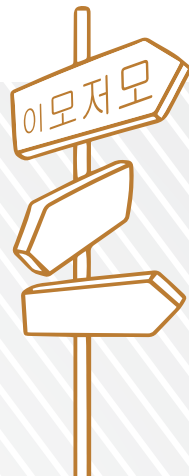
신한대학교는 8월 17일 의정부 캠퍼스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 및 감파하 고등기술센터 교사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 수료식을 가졌다.

신한대학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으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스리랑카 콜롬보 및 감파하 2개 교육기관에 공과전문가 10여명을 1개월(30일)간 파견하여 수요조사 및 이론교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번 초청연수는 신한대학교가 스리랑카 기술개발직업훈련부(MSDVT)소속 교사진 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3개월간 10개 공과분야(메카트로닉스, 로봇틱스, CNC, 유공압, 정보통신, 전기, 전자, 자동차, 용접, 냉동공조)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기술을 전수하게 되어 스리랑카 직업훈련 기반 조성 및 교육훈련시스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 연천군과 관광활성화 위한 MOU 체결, 지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수놓다 서갑원 총장 “신한대는 지역 위해 존재…주민과 함께 가는 교육기관”

지난 8월 27일 신한대학교와 연천군은 한탄강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MOU는 연천 한탄-임진강 유역 지질자원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며, 이를 통해 지질자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또한 활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한대학교는 점경지역인 경기 북부에 위치한 교육 허브로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개발연구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등의 기관을 갖추어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바 있음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그 성과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차후 MOU에 따라 연천군의 각종 관광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연천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연천군의 지속가능한 여행·관광·홍보전략을 위한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천의 자연유산에 대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홍보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천군의 이미지를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에서 다수 수상 미디어언론학과, 2018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에 대거 입상해...

신한대학교의 경우진, 홍지욱, 김시은 학생을 비롯한 미디어언론학과 학생들이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하는 '2018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에 대거 입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에 장애인 주차공간 무단사용을 비판하는 포스터와 SNS의 잘못된 사용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출품하여 입상한 김시은 학생(미디어언론학과.2)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미디어언론학과는 흔히 ‘절댓값이 없는 학과’로 불린다. 답이 정해져있지 않은 만큼 학생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력, 설득력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시은 학생은 “학과 실습수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도 일상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입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송은 기자



신한대-중랑직업전문학교 산학협력협약 체결

지난 9월 20일,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민음관에서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중랑직업전문학교와 산학협력협약체결 및 대학발전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왕보용 중랑직업전문학교장은 신한대학교 발전기금에 써 달라며 신한대학교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한대학은 축적된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중랑직업전문학교는 이를 활용하는 협력패턴을 구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력 과정에서 산학 간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노력과 기술 정보를 교환해 교재를 개발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참여시켜 취업에도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한대 서갑원 총장은 왕보용 중랑직업전문학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윤지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국내 최고수준 국립암센터 산학협력협약체결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지난 9월 27 국립암센터 행정동 3층 첨단회의실에서 국립암센터와 산학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산학 간 연계체제 확립을 위해 교수의 연구와 교재개발에 필요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과 활용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또 신한대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관련 학과생들을 위한 현장실습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갑원 총장은 신한대학교의 보건계열 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실습으로 취업과도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너지가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지 수습기자





창업에 강한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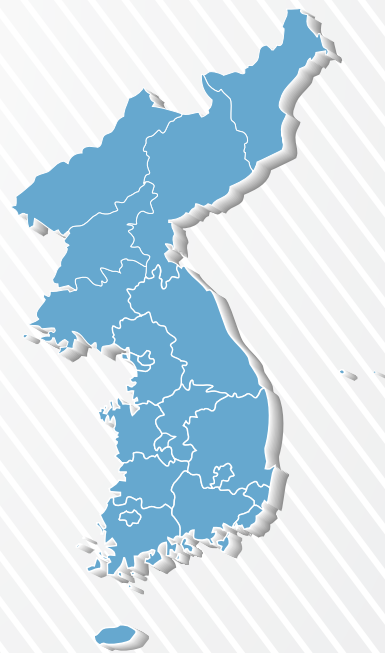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분석보고서 경진대회에서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민서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작품은 '마켓 컬리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상품 기획! 건강에 간편을 더 하다.뚝딱!'이다. 또 글로벌통상경영학과와 김중성 학생이 '빅데이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마케팅 제안'으로 최우수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을 차지해 신한대에 경사가 겹쳤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대, 광운대, 숭실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대학 졸업 예정자로 구성된 16개 팀이 출전해 경쟁을 벌였고,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상구 교수의 지도하에 두 학생 모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희지 수습기자-

최완규 석좌교수, 남북정상회담 대통령방북 수행

지난 18일,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신한대 부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했다. 최 교수는 원로자문회의의 일원으로 대통령을 수행한 학계 멤버 3명 가운데 1명이며, 2박 3일간 평양에서 대통령을 수행하였다. 최 교수는 이에 앞서 9월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로자문회의에 참석해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에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북미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을 자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지 수습기자



평생교육원, 2018 후기지도자과정 학점은행 수료식

배움을 향한 또다른 열정

서갑원 총장 “신한대는 지역 위해 존재... 주민과 함께 가는 교육기관”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 평생교육원 2018년 후기지도자과정 및 학점은행 수료식이 8월 22일 서갑원 총장을 비롯해 이용걸 총동문회장, 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63명,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는 68명이다.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폭넓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도자과정은 글로벌, 평화통일, 외식산업, 여성, 발효식품 창업, 침술동양의학, 손자병법, 도예(도자기), 골프아카데미, 드론영상촬영 등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점은행은 사회복지학, 아동학, 간호학, 방사선학, 임상병리학, 치기공학, 체육학 등 7개 학과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부장관과 신한대학교 총장이 학사학위를 인정함으로써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규현 기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3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대원	시설지원팀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이동원	학생지원팀	최진영	식품영양전공
강성현	산업디자인전공	박호균	컴퓨터공학전공	이명호	호텔조리전공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강수철	학생지원팀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이선민	공간디자인전공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강정원	유아교육과	배시애	교양학부	이승영	산학지원팀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배영금	국제어학과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권영길	교양학부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이은정	호텔조리전공	홍승예	중앙도서관
권영일	임상병리학과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황경숙	치기공학과
김경희	유아교육과	송기상	국제교류팀	이찬주	전자공학전공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송운홍	기획처	이청재	치기공학과	황보상원	공법행정학과
김남용	공법행정학과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김동섭	호텔조리전공	신용칠	임상병리학과	임호진	대외협력팀	황희숙	사회복지학과
김문규	학술정보팀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장인봉	공법행정학과	김창욱	
김민정	뷰티헬스전공	오병칠	공간디자인전공	장정순	사회복지학과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김봉건	입학사정팀	오이균	공법행정학과	전영주	홍보팀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김상욱	발전기금팀	오홍진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경기도회	
김상현	방사선학과	우두한	시설지원팀	전현주	국제어학과	송내교회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유병엽	대학본부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김옥희	교양학부	윤미숙	치위생학과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김용섭	교목실	윤상곤	시설지원팀	조상민	시설지원팀		
김정훈	전자공학전공	윤효숙	임상병리학과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김종권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강석	시설지원팀	조성운	시설지원팀		
김종만	교육총괄팀	이경희	치위생학과	조우택	학술정보팀		
김주현	입학총괄팀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진선범	교육총괄팀		
김창희	학생상담팀	이기찬	교양학부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김호성	방사선학과	이남전	교학팀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마상철	방사선학과	이대성	국제교류팀	최에스더	뷰티헬스전공		
박주원	유아교육과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지연	학생상담팀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적사항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주소	(자택) (TEL)		
		(직장) (TEL)		
E-mail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 용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경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CMS	CMS(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자동출금해기는 방식)		
		결제일	☐ 일	결제은행 은행
		결제 계좌번호		
	예금주명	☐ 기부자명과 동일 ☐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아래내용 작성)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무통장 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팀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8. 11/ 195호

편집후기

김민성 기자

벌써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기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수습시절보다 더 서툴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실수는 성장을 위한 거름이라 했던가, 유독 실수가 많게 느껴졌던 이번 호의 편집후기이다. 매번 발전을 다짐하는 것도 식상하지만 역시 편집후기로는 자기반성과 다짐만 한 게 없는 것 같다. 더 나은 내가 되길!

김치현 기자

벌써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했다. 그리고 신문사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수습기자들이 새로 들어왔다. 나도 처음 신문사에 들어와서 선배 기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

이송은 기자

추석이 지나 완전한 가을이 왔다. 언제 더웠냐는 듯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신문사에서는 새 식구를 맞이했고, 나는 세 번의 수습기자를 맞이한 부국장이 되었다. 이제 햇병아리 티는 완전히 벗었지만 기사 쓰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매번 그래왔듯 기사를 못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도태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 196호 때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현규 편집장

글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해답을 아직 알지 못한다. 내가 쓰는 글은 잘 쓴 글인가, 못 쓴 글인가. 내가 쓴 글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기린 그림인가 못 그린 기린 그림인가. 수년간 글을 써 봤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마 수십 년을 더 써도 잘 모르겠지. 슬픈 일이다.

이번에도 신입기자들이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글은 읽는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번 글도,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최수민 기자

이번에 함께하게 된 신입기자들이 신문사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기존의 신문사 학생기자들에게도 항상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해 주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번 195호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직업관이나 스스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맞게 될 새로운 겨울과 함께 다양하게 지식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한규현 기자

이번 호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서툰 부분이 많았다. 항상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다. 노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는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집중해서 맡은 일에 집중해야겠다.

신대현 기자

10명의 기자들이 엮어낸 이번 신한특록은 항상 가득 차려진 음식과 같다. 그 음식들 안에는 우리들의 고생, 땀, 정성, 열정이란 조미료를 넣었다. 그렇기에 맛이 쓰다면 그것은 고생의 맛일 것이고, 짜다면 흘린 땀의 맛일 것이다. 반대로 달다면 정성 가득함에서 오는 맛일 것이고, 얼큰하고 시원하다면 쏟아 넣은 열정 때문일 것이다.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숟가락을 들어라. 그리고 다시 맛보아라. 잊지 못할 맛이 될 것이다.

차수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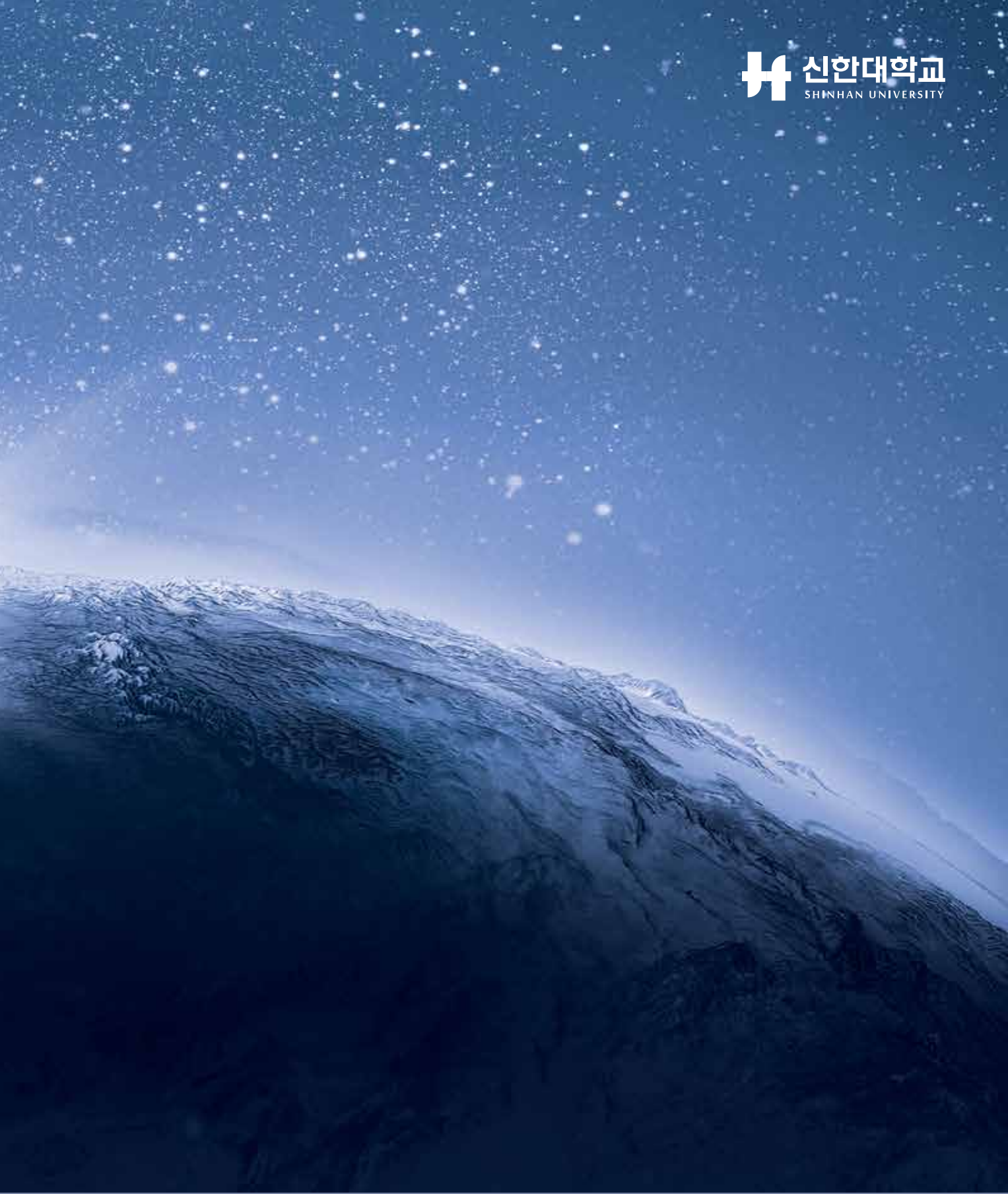
축다. 2018년도 2개월 남은걸보며 나의 21살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걸 느낀다.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였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이제는 어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남은 2년 2개월도 지금처럼 무사히 보내고 싶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정윤지 수습기자

신문사에 입부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사를 쓰게 됐다. 난생처음 쓰는 기사라 부담감도 들고 막막함도 들었지만, 신문사 선배들의 도움으로 잘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선배들을 본받아 어엿한 신한대 기자로써 신문사 활동을 잘 해나가고 싶다.

조희지 수습기자

이번 학기부터 신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어렵고 서툴다. 수습기자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기자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더 센!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

■ 정시모집(가,나,다군) : 2018년12월29일(토)~2019년1월3일(목) ■ 입학안내 : 031)870-3211~7